

초초로 마음의 투쟁에서 이겨야 진정한 이긴자

나를 버리기 위해 평생 동안 투쟁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으며, 절대로 영생도 할 수 없고, 이제그대로 나를 온전히 주장해야만 하나님이 되는고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할 수 있도록 자신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생각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한 후 하나님이 완전히 좌정하셔야만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생각하면 마귀의 피가 움직이는고로 하나님의 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피가 움직여주어야만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피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시간 시간이 나를 없애 버리기 위해서, 시간 시간이 나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투쟁을 평생 동안 했던 것입니다. 나를 항상 버리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가운데 약 50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나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6000년 묵은 돌 구렁이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의식이 몇 십년 묵은 영이 아니고, 600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묵은 영이 되는고로 돌 구렁이 영인 것입니다. 그 돌 구렁이 영을 짓이기고, 돌 구렁이 영을 완전히 제거하는 비결은 그 영을 제거해 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제단에 나오면 나를 제거하는,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아니하니깐 중간에 좌절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승리제단 나와야 헛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이 완전히 제거만 된다면 그 다음엔 바로 하나님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는고로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쉬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격이 급하다.", "나는 성격이 못됐다."는 등 자기 성격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멍텅구리인 것입니다. 승리제단에 나오면 나를 항상 버리라고 그러는데 내 성질이 급하고, 내 성질이 고약하고, 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멍텅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버리고, 나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워 버릴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요, 가장 큰 문제인데 만날 자기 성질이 어떻고 어떻다고 자랑을 한다면 그것은 나를 짓이기고 나를 없애는 투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그러므로 나를 버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반대 생활을 하고,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기고,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면서 시간 시간이 형제의 몸을 내 몸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



조희성 구세주

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온전히 맡기려고 투쟁을 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맡기게 되니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맡기는 것이 반대 생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 생활을 하는 것이 무척 힘들지만 그 반대 생활의 과정을 거쳐야만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게 되면 이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요,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요,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과 마음과 생명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마음의 각도에서 생각을 한다면 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온전히 반납을 해서 맡기면 하나님의 마음인고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장하는 마음만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도 이루어져

이 사람이 밀실로 가기 전에 공유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공유물산 주식회사를 경영할 당시에 이 사람의 막내 누이동생이 결혼식을 한다고 통지를 받았지만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못 갔냐면 이 사람의 몸이 하나님 몸이요,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요,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인고로 옛날 조희성의 동생이지 현재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쯤은 결혼식이 끝났겠지."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온전히 자유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고로 이 사람이 집에 전화를 걸 수도 없고, 집 생각을 하려야 할 수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하려야 할 수도 없고, 온전히 가족을 생각하러 생각할 수가 없고, 과거를 생각하러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투쟁

을 하는 가운데서 생활을 하는고로 누이동생 결혼식엔 더더군다나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유율법이라는 건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이므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율법을 지켜야 영생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나 영생하는 것이지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성질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버리면 화도 나오지 않고, 못마땅한 생각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못마땅한 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못마땅한 사람의 장점을 빨리 찾아내서 그 장점을 생각을 하고, 그 못마땅한 생각을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의 장점을 빨리 찾아야

이와 같이 자신과의 투쟁이 있어야 그게 되는 것이지, 자신과의 투쟁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제지하고 스톱시킨 다음, 그 다음에 빨리 그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상대방에 대한 미운 마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꿀 때에 바로 미운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라는 의식이 약해지면서 나라는 의식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1초 1초 그 마음을 자유율법을 지키는 마음으로 돌려놓을 때에 그때에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라는 것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어서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고, 하나님이 뵈다가 되어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시간이 마음의 투쟁을 해서, 시간 시간이 자신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만 승리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간 시간이 그러한 마음의 투쟁을 해서 그 마귀와 투쟁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와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능수능란한 선수가 되어야 이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펄박을 하고, 미워도 하고, 귀 싸대기를 때리고, 매를 맞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이길 수 있는 마음, 또한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기게 해 주셔서 이긴자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바로 마귀가 "옥" 하고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서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기도를 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결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죄인들과 부딪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이겨야 이루어지고 이긴자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992년 2월 3일 주님 말씀 중에서
원현욱 기자 정리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순환

사람 가운데 늙어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고생해서 번 돈, 비싼 돈 들여 화장하고, 건강에 좋다면 뭐든지 다 먹는다. 이것이 팩트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대로 살고 있는가, 죽음이 코앞에 닥쳐도 후회 없는 삶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영동하게도 우리 대다수는 정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에 시간과 열정과 돈을 허비하고 있다. 해가 뜨면 사라질 이슬처럼 잠시 잠깐 머물다가 갈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삶의 가치와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한 번뿐인 인생을 참나에 사라질 운명으로 종을 치는 것이 아닌, 할 수만 있으면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즐겁게 누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려면 사람이 왜 늙는지 병 걸리는지 죽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는 것이 힘이다'라고 머리로는 기억하지 말고, 온 몸으로 깨닫고 느끼도록 철저히 몸부림칠 때다. 할 수만 있으면 젊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다.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말자. 천하를 얻고도 이 몸이 늙고 병들어 고통 속에 신음한다면 그것처럼 인

생을 잘못 산 것도 없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늙지 않겠다는 뜻을 세우고 미치도록 파 들어가 보자. 미치지 않으면 달콤한 성공과 성취의 열매는 없다.

사실 노화학자들조차도 아직까지도 왜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모른다. 그렇지만 지엽적인 부분이 파악되어야 그 근본원인도 받아들여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몇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자.

첫째는 '프로그램 이론'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노병(老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장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보통의 수명으로, 또 어떤 사람은 단명(短命)을 하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설이다. 이 설은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

하지만 부족하고 미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설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정통한 자의 눈으로 본다면 노병사의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운명에 지배받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론이다. 노병사의 프로그램 이론을 거스를 수 있는 지혜와 초능력자에게는 결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노화와 죽음의 근본원인은 피의 산화(색음)에 있다



둘째는 '마모이론'이다.

이 이론은 가장 오래된 이론의 대표격이다. 우리 몸과 세포들을 계속 쓰게 되면 손상이 오며 노화가 일어난다는 이론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론이 저 유명한 '헤이플릭 한계이론'이다. 우리 몸의 세포분열의 횟수가 정해져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절대적으로 인간을 만물과 똑같이 각자의 타고난 수명대로 살다가 간다는 이론과 별반 다르지 않을 뿐더러 인간을 물질관과 기계론적 입장에서 취한 이론에 불과하다.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마음과 생각으로 실천으로 자기의 몸을 젊게 재창조하고

재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었다. 주변에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나이에 비해 동안(童顔)을 하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은 이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실례로 볼 수 있겠다.

세 번째, '신경 호르몬 이상 이론'이다.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들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신체의 한 부분에서 합성되어 혈액을 통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그곳의 세포나 조직 기능을 조절하는 생체 신호 전달물질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므로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회

복 능력과 조절 능력도 떨어지면서 늙는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조금만 인체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어떤 비정상적인 일차적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차적 요인일 따름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정신과 신체의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면 결코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흔하게 아주 젊은 나이에도 신경 호르몬 이상 증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나이가 많이 먹어도 이런 경우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일차적 요인의 이상에 따른 이차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는 '활성산소 이론'이다.

산소가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대부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을 하거나 섭취한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산소가 필요하다.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인 미토콘드리아는 종종 발전소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발전소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는 화학물질들과 결합하고 물과 탄산가스를 배출하지만 산소의 약

1~5%는 불가피하게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로 변한다. 공기 중에 산소가 식물 녹색에 하는 것처럼 활성산소는 성체 조직을 공격하여 세포를 산화해 결국 손상시킨다.

이 이론 또한 지엽적인 것으로, 그래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손상을 빨리 회복하는 메카니즘이 잘 작동하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이 누적되고 회복이 더디 되느냐 하는 것이다. 핵심을 논하자면 산소 자체도 일정 부분 반생명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생명이 절대적인 필요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고 기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반생명적인 것이 누적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는 메카니즘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도 노화의 일차적인 요인이 라기보다는 부차적으로 정상적인 시스템이 약화되어 파생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이론들은 그래도 노화와 죽음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노화의 근본원인은 아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아우르는 노화의 근본원인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요소가 되는 '피의 산화(색음)'에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전무후무한 진리를 과학적 심리적 경험적 인과분석적인 측면에서 입증해 나갈 것이다.*

김주호 기자